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August, 2009 제51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7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나는 네 엄마이다!

언제나 내 성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언제나 평화를 얻으리라.
네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도무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봉헌한 사람은 전적으로 내게 속하므로,
하루 중 어느 때도 자신을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

나와 함께 있어라!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알려 줄 테니,
그러면 네가 언제나 내 뜻대로 행동하는 셈이 된다.

너의 손을 잡아 주마!
무엇이나 너와 내가 함께 하기로 하자!
너에게는 내가 마치 아기에게 첫 걸음마를 시키는 엄마와 같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 9. 1973년 7월 29일에서 발췌)



축
하
드
립
니
다



2009년 7월 18일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프란치스코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허원식을 하였습니다.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임원 및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선교회의 어머니 마을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5월 23일 세상을 떠난 Dennis Brown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든 연옥 영혼들과 낙태아의 영혼들과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정연순 시어머님의 영혼을 천국낙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 낙태를 한 모든 여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 성모님, 크리스티나의 백납증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저의 파킨슨질병을 고쳐주시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의 은총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프란치스칸 허원을 하시는 신경남 신부님께 하느님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저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음을 감사드립니다.
- 어머니 마리아여, 저와 제 자녀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 주님, 모든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성모님! 갱년기 불안증 치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 이라크에 파병되어 근무중인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이민생활에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와 용서 사랑 평화를 빌어주소서.
- 가정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특별 은총으로 성사도 보고 회두시켜 주세요.
- 성모님, 내 마음 다 바쳐 주님 안에 살게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소서.
- 주님, 우리 가족들 서로의 상처 치유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소서.
- 아들의 학교 성적 향상과 건강과 용기와 지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 000와 000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소서!
- 성모님, 000의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신앙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 000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사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000과 사고로 머리를 다친 000를 위해 기도합니다.
- 000이 세속적 유혹을 이겨내어 하루빨리 주님안에서 화해하고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 저의 가족과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 모든 가족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청하며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 성모님, 000의 영육간의 건강과 특히 마음의 평화와 신앙생활을 잘 할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위해 기도해주소서.
- 성모님, 최00자매님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소서.
- 제 믿음이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게 이끌어 주소서.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아버님께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길 청합니다.
- 예수님, 이원희데레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제 몸에 있는 종양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00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아가다의 건강회복과 김00 시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7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체 없는 사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 (작은 형제회)

성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체가 거양될 때, 성 토마스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 참조)"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강생하시는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복되신 동정녀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미사 중에 우리들이 봉헌한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실제적인 주님의 몸이 현존하도록 성 변화의 기적을 완성시킵니다. 거룩한 동정녀께서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주님은 전능하시다" (루카 1:37,47)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살아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봉헌한 사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넣고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은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은 그 존재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지만 포도주와 섞임과 동시에 아무도 그것을 분리하거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은 성령의 역사하심

과 사제가 바치는 기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과 노동, 고통 등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과 일치할 때, 이 모든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사를 통하여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그분의 신성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 뼈로 만들어졌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에 찢린 옆구리에서 탄생하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한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킬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또 다른 이들의 구원에 필요한 은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오시는 거룩한 성체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의 열린 심장입니다.

거룩한 희생 제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왜 사제가 제대에 입을 맞추니까? 이사야 예언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서 있다"(이사 49:16) 저는 성당 안에 있는



사탄은 여러분을 제대와 주일미사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를 나를 위해 벌리신 야훼의 손바닥으로 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피로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으셨는데, 누가 과연 그 거룩한 손바닥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는 그리스도의 열린 심장입니다! 심장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행되는 미사는 항상 성변화를 이루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빵과 포도주의 사건은 우리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이 말씀은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인이나 교만한 사람, 혹은 무지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는 자비로우시며, 겸손하시고, 관대하시며 온유하신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 거룩함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받았겠습니까? 성체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현존하시며 당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요한 6, 56) 이것은 생명이 있는 약속입니다.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는 감실 앞에서도 우

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어느 날, 홀쩍이며 길을 가는 성인을 보고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할 줄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몰라서 슬픕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랑할 줄 몰라서..."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복음 안에 살아 계시는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아들, 이웃과 교회 안에 계시는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제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회

성모님께서서는 성체와 사제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셨습니다. 성체와 사제들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럽에서는 사제 성소가 줄어들고 사제들의 노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 부부가 어느 날 메주그리예를 찾아왔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성체를 향한 믿음과 교회 쇄신을 위한 사제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한 기도를 전파하고자 "마가렛"이라는 기도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마가렛꽃을 그려서 가운데의 꽃 수술 속에 기도가 필

가족들의 마음과 기도 안에 사제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 사제의 이름을 쓰고, 꽃잎마다 그 사제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해당 교구의 대교구장께서는 교구내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가 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부교수가 시작한 새로운 사도직을 위한 기도회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사제들을 위한 기도회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격려와 관심도 커지면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성소를 개발하고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사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제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교회와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가족들의 마음과 기도 안에 사제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제대에서 분리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제의 손은 사제수품 때의 기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 손은 제대 위에서 제물을 봉헌하는 손이며, 성변화의 순간에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제들의 손에 의해 하얀 성체가 봉헌될 때는 가장 위대하고 새로운 창조와 놀랍도록 신비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체 없는 사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갔을 때, '빵 조각'에서 분리되

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일치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지내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수많은 범죄자와 정치범들 가운데 사제는 오직 세 명 뿐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미사와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성경과 묵주, 어떠한 성물도 소지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사제로서 제대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마치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안에 수감되었던 사제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 어느 한 사제만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대와 성체성사로부터 사제의 마음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체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무가 금지됐어도 모든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봉헌되는 성체성사를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제대와 주일미사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거룩한 미사와 제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쇄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체성사에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쇄신 운동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형제들과 냉담한 이들, 이웃들이 다시 성체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당과 모든 이들을 성체 생활로 초대하고 부풀리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의 일과와 고통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성부께 봉헌되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이는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성체성사를 모든 이들에게 확산시키고 그 축복을 나누고 이웃을 거부하거나 미워할 수 없게 인도합니다. 가정의 해로 정해진 올 해, 진정한 가족들의 치유를 원한다면, 성체를 향한 사랑이 모두의 마음에 심어 지도록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M**



< 「Behold Your Mother/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에서 발췌 >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함시켰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거룩한 성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복음서에는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목요일 밤의 성체성사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성모님께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첫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사도 1,14) 기도하던 사도들 가운데 성모님께서 계시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빵을 나누어 먹는 일에 전념한"(사도 2,42)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찬례 거행에 분명히 함께 계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성찬의 잔치에 참석하신 일 외에도 우리는 성모님의 내적 자세에서 성모님과 성체성사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온 생애를 통하여 '성체성사의 여인' 이십니다.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의지하는 교회는 성모님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와 맺고 계시는 관계에서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6장 '성찬의 여인'이신 성모님의 학교에서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53. 우리가 교회와 성체성사의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재발견 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모범이신 성모님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신비에 성체성사의 제정을 포

54. 신앙의 신비여! 성체성사가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라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모님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성모님은 온 생애를 통하여 '성체성사의 여인' 이십니다.

것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고 하시며 그분께 순명하라는 성모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여 주신 어머니다운 관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그가 물을 술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빵과 포도주도 그의 몸과 피가 되게 하고 이 신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부활의 생생한 기억을 전해 줌으로써 '생명의 빵' 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5.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바치심으로써 성체성사 제정 이전에 이미 성체성사의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강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성모님께서서는 몸과 피라는 육체적 실재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모든 신자 안에 성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 안에서 선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천사에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fiat)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든 신자가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실 때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하느님의 아들" 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요청 받으셨습니다(루가 1,30-35 참조). 동정 성모님의 신앙과 일치하여 우리도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성모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현존하심을 믿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 1,45)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강생의 신비로써 교회의 성체성사 신앙을 선취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이미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잉태하고 계셨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드님

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 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말하자면 성모님의 눈과 목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엘리사벳의 흠숭을 받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고 들여다보시는 성모님의 기쁨에 넘치는 그 눈길이야말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비할 데 없는 사랑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56. 성모님께서서는 해골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 곁에 계시면서 성찬의 희생 제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루가 2,22) 늙은 시므온은 성모님께 이 아기가 장차 "반대의 표적" 이 되고 예리한 칼이 성모님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루가 2,34-35 참조).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형의 비극은 이렇게 예고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 아래 서 계신 고통의 성모님(Stabat Mater)도 예시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날마다 해골산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선취된 성찬례' 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당신 아드님의 수난과 일치함으로써 절정에 달하고 봉헌의 '영적 부활' 뒤에 사도들이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며 거행한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나게 될 '갈망과 친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입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가 22,19)라는 최후 만찬 때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의 느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고 성사적 표징 아래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태중에 잉태하셨던 그 몸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심장과 하나 되어 고통친 그 심장을 당신의 태중에 다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서 겪으신 일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빵과 포도주도 그의 몸과 피가 되게 하고...
 '생명의 빵' 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7.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루가 22.19).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이 해골산의 '기념제' 안에 현존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께 해 드린 모든 것도 현존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성모님께 맡기셨으며,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맡기셨습니다. 성모님께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6-27 참조).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한처럼 우리의 어머니로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지신 분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학교에 들어가 그분을 우리의 동반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동화되려고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의 어머니로서 현존하십니다. 교회와 성찬례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면 성모님과 성찬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모님을 기념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서방과 동방 교회의 성찬 거행의 변함없는 일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58. 교회는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에 완전히 결합되며, 성모님의 정신을 교회의 정신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찬례의 관점에서 성모의 노래(Magnificat)를 다시 읽을 때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는 성모의 노래처럼 무엇보다도 찬미와 감사입니다.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라고 외치셨을 때 이미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태도'입니다. 아울러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시고(루가 1.55 참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일, 곧 구원의 강생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모의 노래는 성체성사의 종말론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빵과 포도주라는 '보잘것없는' 성사적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신"(루가 1.52 참조)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새 하늘' 과 '새 땅' 을 노래하십니다. '새 하늘' 과 '새 땅'은 성찬례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모의 노래(Magnificat)는 성모님의 영성을 드러내며, 성체성사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이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의 삶이 성모님의 삶처럼 완전한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M**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에서 발췌〉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금
 단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회
 단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제직은 봉사직이다!

나는 내 사제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 사제들이 내 '구속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와 함께 갈바리아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제들은 고난의 오르막길로 나를 따르기를 거부한다. 나는 내 사제들이 성체 안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제대 위에 내가 실제로 '현존'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사제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유다가 되어 나를 배반하고 있다. 나는 내 사제들이 영혼들 안에 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나라를 썩발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할 턱이 없다. 나는 내 사제들을 영원으로부터 무한히 사랑하기에 그들에게서 사랑받기를 바란다, 사랑의 핵심은 고통에 있다. 사랑의 크기는 고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통을 회피하는, 따라서 사랑을 회피하는 사제들이 많다. 아들아, 나는 내 사제들이 '신비체' 안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잘 알고, 책임감이 있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

란다. 그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은총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따라서 고통으로 활기찬 삶을 말한다. 내 신비체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선이 행해지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는지! 또한 초자연적인 선물이 얼마나 많이 허비되고 있는지...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가고 있는 내 가련한 사제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회개를 원하는 것이다. 아들아, 그런 사제들을 위해서도 고통을 받으며 기도하라고 내게 부탁한다면 네 귀에 이상한 말로 들리겠느냐?

나는 너희가 너희의 소명을 의식하기를 바란다

나는 특별하고 큰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였다. 나는 내 사제들이 내 희생 제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바란다. 그것은 상징적인 참여가 아니다. 이 안에서 나의 고통과 사제들의 고통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내 사제들은 지옥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할 의무도 받았다.

그러니 '거룩한 미사'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두렵도록 찬란한 실재이다! 사제는 내 아버지께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는 사제가 봉헌하는 미사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들이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사제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품위와 위대함과 능력을 부여했는지! 빵과 포도주의 실체를 변화시켜 나 자신이, 나의 몸, 나의 피, 나의 전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냐?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날마다 '강생'의 기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구원 신비'의 열매를 맡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이들로 정하였다. 또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 신적 권능도 주었다. 그리고 내 양부(성요셉)처럼 그들도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제들의 경우, 감실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요셉 성인이 내게 기울이던 사랑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들이아, 나는 사제들에게 내 '말'을 선포할 의무도 주었다. 그러나 사제 직무상의 이 중요한 의무를 그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복음 선교가 일반적으로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사제들은 지옥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할 의무도 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관심을 쏟은 사람, 마귀를 쫓아내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일을 하려면 성덕을 지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기도와 극기가 필수적이다. 아들이아, 나는 내 사제들이 성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제들은 많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뢰를 사람들에게 둘 일이 아니라, 나의 자비로운 성심과 내 어머니의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제들은 참으로 내 성직자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품위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들은 내가 신 임장을 주어 못 사람과 가정들과 못 민족들에게 보낸 나의 특사들이다.

사제들은 나의 영구적인 사제직에 실제로 참여한다. 사제는 '신비체' 안에서 위대한 일들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주역이다. 사제들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며 목숨을 바치는 제병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

신의 지능과 활동같은 인간적 수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믿음과 사랑과 고통과 기도가 없는 사제의 외적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활동이다. 사제직은 봉사직이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과 구별된다. 섬김을 받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 목자가 그의 양떼와 구별되듯이 사제는 마땅히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사제들이 (아씨의 프란치스코처럼) 그들이 지닌 품위의 위대함과 그들이 입고 있는 숭고함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동료 사제에 대해서나 크고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나를 잊어 버리고 그들 자신만 생각하는 사제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의 사제들은 세속과 영합한다. 세속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나를 배반하는 사제들이 있는가 하면 오류와 이단의 씨를 뿌림으로써 영혼들의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제들도 있다. 또 어떤 사제들은 사랑이 없어서 (영적으로) 바싹 말라 있다. 사랑은 영혼에 생기를 주는 수맥이요, 그 진정한 핵심은 고통이다. 그런즉 너는 내 모든 사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보속과 참회와 기도에 대한 나의 권고에 명확히 화응하여, 기도하면서 너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 그렇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d majorem Dei gloriam)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비체' 안에서 자기 고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

〈가톨릭 출판사,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에서 발췌〉





성모님의 메시지 묵상



너희들의 삶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여라!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 속에서 회개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드려라. 어린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삶으로 증거 하여라.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너희의 손을 내밀어다오. 나는 어머니로서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6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 속에서 회개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드려라: 오늘은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서 발현을 시작하신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매년 6월 25일을 성모님 발현 기념일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신 날은 1981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성모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그 다음날

인 6월 25일 발현목격증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건네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발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5일을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기념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을 시작하신 첫 날인 1981년 6월 24일은 교회 전례력에 따르면 성 요한 세례자 대축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예언자 세례자 요한처럼 성모님께서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류를 준비시키고자 그날을 택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성모님께서서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메주고리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성모님께서서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로 인류를 인도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모님께서 이번 달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 속에서 회개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든 아기, 즉 세례자 요한이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성모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에게 모셔 온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새로운 계약의 궤이시며 최초의 성당,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님 안에 모셔진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 즉 성체를 보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19세기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많은 발현들과 그 발현들의 정점을 이루는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모셔다 주시면서, 우리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뻐하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셔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기쁨 속에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오랫동안 성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평화를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 성모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천상의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보내주고 계시는 그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현존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의 은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평화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삶으로 증거 하여라.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너희 손을 내밀어다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욕망에 따르기 십상이기에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 사목의 대부인 돈 보스코 성인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삶으로 증거 하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느님 사랑 증거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작가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시니다."(시편 145:9-10, 15-16)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자비하시고 충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만 해야 하겠습니까?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의 집에 양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양식을 받자마자 집을 나가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마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테레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앞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 집도 우리처럼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계속해서 굶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주신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고통에 앞서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고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1 요한 4:9-10)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우리도 당신을 대신하여 하느님 사랑의 참된 증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너희의 손을 내밀어다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모님께서도 우리가 당신 손에 들려 있는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창조주의 어머니이시며 우주의 여왕이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님, 평화의 모후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당신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신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과 평화의 길, 즉 당신께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통하여 주시는 천상의 가르침에 저희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 가르침을 통해 참된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소시요.

성모님,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당신의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며 실제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시요.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7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이번 달 성모님 메시지는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

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이번 달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성모님의 자녀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맺어지는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신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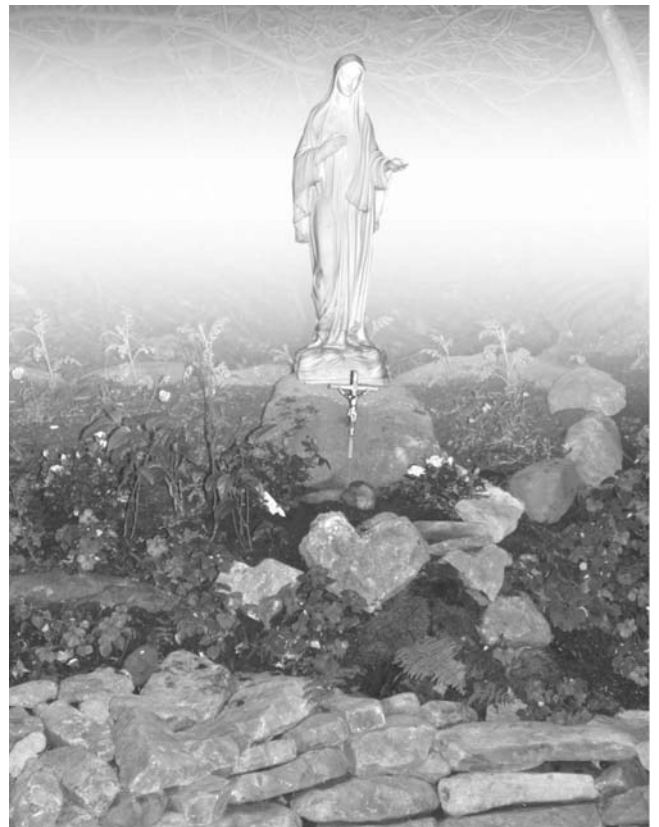
성모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입니다.

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늘 그러하시듯이 이번 달 메시지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늘 들어온 말씀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성모님은 온 인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성과 인종, 국적과 종교, 그리고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세상 모든 이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성모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죄 중에 있거나 그분에게서 멀리 있거나 혹은 심지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모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특전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늘 들어와서 무디어진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만 이번 달 메시지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현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어머니마리아께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껴보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에서 '자녀들아'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성모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성모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00야' 하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자신을 불러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이웃, 교회 혹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언뜻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며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함과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평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심으로 성모님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때' 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때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매일 기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시간과 장소 혹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다 보면, 그 기도의 계획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이번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분의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선함을 믿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시기가 참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M**





너희의 모후이고 지휘관인 나

108. 76. 8.22.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나는 너희의 여왕이다. 성부의 권능과 성자의 지혜와 성령의 사랑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빛 속에서, 내게 어머니인 여왕의 역할을 영원토록 확정해 주셨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나의 대관식이다. 성자의 어머니요 성자와 함께 있는 여왕으로서, 내 왕위는 하늘과 땅에 걸쳐 보편적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지휘관이다. 나는 너희를 부른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친히 여왕이요 지휘관인 군대에 너희 모두를 모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는 우두머리가 없도록 해라. 모두 사랑 안에 일치하는 형제여야 하고, 그 사랑을 더욱 키워가야 한다. 누구든지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참으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내 말을 귀여겨 듣는 사람, 내 티없는 성심 안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작아지는 사람만은 내가 몫소 더욱더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지휘관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지시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특히,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순종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고 싶다. 순종과 유순함,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고자 하는 제복이다. 내 명령은 내 아들 예수께서 당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교황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교황, 즉 그에 일치된 교계제도와 함께 있는 교황'이다. 오늘날 사제들뿐 아니라 주교들마저 내 아들 예수님 대리자의 명령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음을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여간 아프고 쓰라리지 않다!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면 패하고 망하기 마련이다.

(*마태 12,25;마르 3,24;루가11,17 참조)

불순명하고 반역하는 이 가련한 아들들은, 이미 더없이 미묘하고 간교한 교만의 희생자들이 되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내 원수인 사탄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성전의 보호자, 신앙의 수호자로 믿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의 신앙이 누구보다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오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사탄은 또 교황이 진리를 배반한다고 여기도록 너희를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기초, 진리가 모든 세기에 걸쳐 온전히 보존되도록 한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다. 더욱이 그는 너희로 하여금 교황의 행동을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교황의 인격과 그의 활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내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이다.

사제들아, 이 엄마의 총애를 받는 아들들아, 너희는 지혜로워라, 조심하여라, 사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빛 속에 있어라. 이제는 암흑이 무엇에나 침투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숭고한 성무 집행의 특은은 오직 교황만이 입고 있는 것인데, 엄마인 내가 교황의 결정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의 음성에 침묵을 지켰다. 사도들의 음성에도 침묵을 지켰다. 지금도 교황의 음성애 애정 어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의 음성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가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맏아들 곁에 있다. 나의 침묵으로 그가 말하게 도와 준다. 나의 침묵으로 그가 하는 말에 힘을 준다. 돌아오너라, 내 아들 사제들아, 교황에 대한 사랑과 순명과 일치의 길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할 때만, 내가 여왕이고 지휘관인 내 군대에 너희가 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교황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줄 작정인 내 명령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너희가 나와 함께 싸워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격이 된다.(...) 나의 내적 유순을 너희에게 입혀주마. 그러면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너희를 나의 이 전투에 맞갖는 도구로 삼을 것이니, 마침내 너희가 나의 여왕다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메주고리에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레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모든 탄식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어머니 과달루페의 성모님

1531년 12월 9일, 성모님이 멕시코의 테페악 산에서 발현하셨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1521년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이주민들과 함께 신대륙에 건너갔던 스페인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국은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과의 결혼을 권장하면서 멕시코의 언어와 관습 등에 스페인의 유럽 문화를 융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야 아즈텍 문명이 융성하던 아즈텍 제국(지금의 멕시코)을 1521년 스페인인이 정복한 후 꼭 10년 만에 성모님은 멕시코를 방문하신 것이다. 당시 멕시코의 종교는 다신교 형태여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신들 중에서도 전쟁의 신인 휘트잘르포크틀리에게는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인간을 산 제물로 바치곤 하였다. 최고신은 퀘트잘코틀이라고 불렸는데 퀘트잘코틀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날개 돋힌 뱀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기 7백년경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예언자였다. 그는 콜물라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많은 개화된 문명의 지식을 가르친 일이 있었고 이교신앙과 혼합된 형태의 이상한 의식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가톨릭 교의와 매우 유사했다. 그들이 전설적인 그 스승에게서 배운 의식은 후에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발현 목격자 요한 디에고

요한 디에고는 멕시코시티의 쿠아우티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57세의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인디언 농부로



서 이 이름은 그의 세례명이며 원래의 이름은 쿠아우틀라테우악 이었다. 인디언들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스페인들이 멕시코에 건너간 후 3년이 지나서였는데, 이 최초의 세례자들 중에 요한 디에고와 그의 아내 마리아 루치아도 있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후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쿠아우티틀란에는 성당이 없어서 그곳에서 약 14마일(40리) 정도 떨어진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미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려면 테페악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 루치아가 열병으로 죽고 나서 요한 디에고는 그의 숙부 요한 베르나르디노가 사는 톨페틀락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는 성당까지 약 9마일 정도의 거리였으며 숙부의 집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숙부 역시도 세례를 받은 독실한 신자였으며 요한 디에고를 무척 아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다

- 12월 9일의 발현-

멕시코시티 변두리에 있는 테페악 산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은 12월 9일에 두 번, 12월 10일에 한 번, 그리고 12월 12일에 두 번이었다. 12월 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요

한 디에고는 미사에 가기 위해 테페약 산을 넘어 있었다. 그의 샌달은 돌에 찢기어 구멍이 나 있었고 발은 상처투성이였으며 차가운 겨울 바람이 허름한 옷 사이를 매섭게 파고 들었다. 그때 춤고 황량했던 그곳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은 요한 디에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소리는 마치 희귀하고 신기한 새들의 노래 같았다. 그리고 환한 빛에 의해 새벽의 어둠은 밀려나고 동시에 산 위에서 그를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오는 지점을 찾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에는 한 부인이 서 계셨다.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부인은 태양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부인이 서 있는 바위는 보석처럼 빛났으며 그 주위는 무지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의 앞에 엎드려 부인이 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여, 너는 내 말을 명심해 들도록 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 나의 자비, 나의 구원과 보호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하루 속히 성당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도움을 청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자비의 어머니다. 나는 그들이 탄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멕시코 주교관에 가서 이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도록 하여라. 네가 지금 본 것도 모두 전하여라.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뻐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확실히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청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겪는 모든 일들이 은총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곧 멕시코 주교관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여라." 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 디에고는 "부인,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한 후 자신의 비천한 신분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내로 들어가 주교관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용기

를 내어 주교관 문지기에게 주교님을 뵈게 해달라고 청했다. 스페인 사람으로서 멕시코의 초대 주교인 돈 프레이 요한 데 주마라가주교는 인디언들에게 사도적 열성과 사랑을 지닌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요한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가한 시간이 있어 당신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 오시오" 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주교관에서 나온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페약 산으로 다시 발길을 옮겼다. 주교의 말을 듣고 다소 실망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성모님을 생각하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다시 성모님을 만난 그는 "니나미아" 라고 인사하며 엎드렸다. 그가 성모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이 말은 멕시코의 비천한 계층의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었다. 그리고는 주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더라는 것과 자기처럼 비천한 신분보다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청을 드렸다. 하지만 성모님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다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너는 나에게 많은 사자들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다른 이들을 시켜 내 말을 전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나의 청을 받아들여 너의 중재와 도움으로 나의 뜻이 이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일 다시 주교에게 가거라. 그리고 주교에게 내 말을 전할 때에도 내 이름을 들어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성당 건립은 마땅히 주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나의 뜻을 특별히 전하도록 하여라. 또한 너를 보낸 이가 하늘의 여왕이신 성 마리아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여라."

12월 10일의 발현

12월 10일 일요일, 주일 미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주교관으로 향했다. 주교관 하인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안으로 들어 보내주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주교와 대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주교 앞에 서자 설움이 북받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성모님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도 주교는 인디언의 말을 믿지 못한 채 "다시 올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요한 디에고는 "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신 하늘의 여왕께 제가 청하겠습니다" 고 말한 후 주교의 앞을 물러나와 다시 테페약 산 위에서 성모님을 만나 주교의 말을 전했다. 성모님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러하다면 주교가 요

성모님 발현 기념성당



구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도록 할 테니 내일 다시 이곳에 오너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참된 믿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겪은 고통에 보상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돌아가거라. 나는 내일 이곳에서 다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성모님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 그는 마을로 돌아와 숙부 요한 베르나르디노의 집에 들었다. 그런데 숙부가 열병에 걸려 몹시 위독한 상태였다. 급히 마을의 의사를 불러왔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채로 그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성모님과 약속한 날인 12월 11일이 밝았지만, 위독한 노인을 간호하느라 성모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12월 12일의 발현

그 다음날은 12월 12일 화요일이었다. 요한 디에고는 첫새벽에 집을 나서서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향했다. 숙부가 병자성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부님을 모시러 가야 했다. 그런데 수도원으로 가자면 테페약 산을 넘어야 했으므로 그는 성모님을 만나게 되면 지체될까봐 그 산의 다른 길을 택하여 가려고 했다. 그러면 성모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산의 중턱에서 그는 성모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요한 디에고,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 고 성모님이 물으셨다. 그는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성모님은 그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요한 디에고, 이제 네가 걱정할 일은 없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숙부의 병도,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진정한 희망이며 구원이 아니란 말이냐?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희에게 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제 너를 괴롭히며 불안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네가 숙부의 병이 이미 완쾌되었음을 진심으로 믿기 바란다."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았으며 숙부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믿음이 생겼다. 성모님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셨다. "가거라, 요한 디에고!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산 위로 가거라. 그곳

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모아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요한 디에고는 곧장 산 위로 달려갔다. 그러자 그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영경귀, 가시덤불, 선인장 등으로 덮여 있었고 특히 12월이면 그런 잡목들마저 완전히 얼어붙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매우 싱그러운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놀랐지만 주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그 꽃들을 자신의 털마(망토)에 담아 성모님께 가져갔다. 성모님은 그가 가져온 꽃송이들을 보시자 손수 그의 털마에 꽃을 가지런히 놓아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아, 이 장미꽃들이 네가 주교에게 가져갈 표적이다. 너는 이 꽃을 그에게 가지고 가서 어떤 말도 보태지 말며 내가 보고 들은 사실들을 전하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 곳에서 장미를 발견하고 가져온 사실만을 말하여라. 그러면 그는 네 말을 믿게 될 것이며 내가 요청한 성당이 세워지는 날까지 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성모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는 그 신기한 장미꽃들을 갖고서 주교관으로 급히 갔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그를 문전박대하며 괴롭혔다. 그러다가 요한 디에고의 털마에 담겨진 것들이 장미꽃임을 알고는 무척 놀라서 주교에게 들여 보내주었다. 주교를 만나자 그는 자신이 보았던 사실들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주교님께 보내신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라며 조심스럽게 싸들고 왔던 장미를 펼쳐 보였다. 그러자 그 꽃송이들은 다채로운 색깔과 온갖 향기를 발하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주마라가 주교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교의 입술은 떨렸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주교의 시선은 요한의 털마에 고정되었다. 놀란 요한이 주교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털마를 내려 보았을 때 그도 깜짝 놀랐다. 그 털마에는 때묻은 자국은 전혀 없었으며 테페약 산에서 자신에게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의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주마라가 주교는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을 사과한 후 허리를 굽혀 요한의 목에서 털마를 벗겨 자신의 개인 기도처인 소성당으로 가져갔다.

숙부 요한 베르나르디노의 치유

성모님의 발현 장소를 찾아 온 주교에게 성당을 짓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요한 디에고는 병석에 누워 있는 숙부

를 찾아 갔다. 그런데 위독한 병중에 있던 숙부는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숙부는 요한 디에고가 신부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성모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뵈는 순간 자신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날은 12월 12일이었다. 성모님은 숙부에게 그의 조카 요한 디에고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시며 테페약 산 정상에 세워질 성당에 당신의 성화가 안치될 때 그 성당 이름이 "과달루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 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래서 숙부는 조카와 함께 주교를 찾아가 성모님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직접 전했다.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주교는 그 성화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자신의 개인 경당에서 큰 성당으로 옮겨 놓았다. 인디언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확신대로 그것은 성모 공경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다.

과달루페(Guadalupe)의 뜻

과달루페라는 이름은 루르드나 파티마처럼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점의 이름이 아니다. 성모님의 발현지는 테페약 산이었다. 이 이름은 성모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것이다. 그럼 과달루페의 성모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성모님은 인디언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성모님의 말을 분석해 본 결과 "데 과달루페"(de Guadalupe)라고 들렸던 것은 아즈텍어로 테 콰틀라소페우(Te Coatlxopeuh)를 테 콰틀라소페우(Te Quatlaxopeuh)로 잘못 들었던 탓이었다. 두 단어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테(Te)는 '돌'을 의미하고 콰(Coa)는 '뱀'을 뜻한다. 틀라(tla)는 영어의 the와 같다. 소페우(xopeuh)는 '쳐부수다', '박멸하다'는 뜻을 갖는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요한 베르나르디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인 "그 성화는 과달루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에서 그가 잘못 들었던 '콰틀라소페우'는 '돌뱀을 쳐부수다' 또는 '박멸하다'는 뜻으로서 성모님의 메시지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당신이 언급하신 돌뱀은 아즈텍인들이 섬기는 날개 돋힌 신 콰트잘코틀(Quetzalcoult)임이 분명하다. 콰트잘코틀은 아즈텍 인디언들이 해마다 이만 명 이상의 여자와 아이들을 피의 제물로 바치던 신이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서는 그러한 돌뱀의 우상을 물리치시

고자 척박한 그곳에 발현 하셨던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의미의 인디언어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스페인의 유명한 성모 순례지인 '과달루페' 라는 명칭으로 옮겨졌다.

과달루페 발현의 의미

역사상으로 볼 때 과달루페의 발현만큼 한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성모님의 발현 후 7년간에 걸쳐 당시 멕시코 인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약 8백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인디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멕시코는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성모님은 그들을 돌뱀(사탄)의 지배에서 구하셨다. 성모님은 사탄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던 그곳을 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당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성스러운 곳으로 승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을 원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한 것은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이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8세기경부터 12월 9일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성모님이 요한 디에고에게 처음 발현하신 날은 12월 9일이었다. 한편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가 제정되기 백 년 전인 1754년 5월 25일 과달루페의 성모를 멕시코의 수호성인으로 인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때 이미 과달루페의 성모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로 인정하면서 시편 147장을 인용하여 "이 같은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고 언급하였다. 1737년 4월 27일에는 과달루페에 발현 하신 성모님이 멕시코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그 후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자취를 감추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12월 12일이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로 선포되었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신의 첫 번째 사목 방문지로, 그리고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1979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과달루페를 순례했다.

(참고: 성모님의 성화가 새겨진 요한의 털마는 당시의 아즈텍 제국의 모든 남자들이 외투로 둘러 입는 커다란 천이다. 그 털마는 본래 매우 큰 것이었지만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난 곳만을 잘라내어 모시고 있는데 성화가 나타난 후 47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성화는 본래의 모습이 조금도 변함없는 상태로 보존되어 전시되고 있다.) **M**

* 요한 디에고는 1548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성인이다. (마리아 2002년 3~4월 112호)



오너라, 내가 네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해주겠다.

로제 수사/떼제 공동체 창설자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그대 안에서 울리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오너라, 내가 네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해주겠다. 와서 나를 따르라."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던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다. 그 응답은 말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아니오, 가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 결국 가게 됩니다. 그는 왜 가지 않겠다고 말부터 했을까요? '예' 라는 응답이 삶 전체를 거는 것이기에,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는 '과연 내가 신실하게 남을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답은 우선 '아니오' 입니다. 그 다음에야 신앙에 바탕을 둔 '예' 라는 응답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먼저 '예' 와 '아니오' 가 서로 충돌합니다. 둘이 맞붙어 마치 씨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는 언제든지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를 선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그 젊은이는 왜 망설일까요? 어쩌면 그 젊은이는 그리스도께 '예' 라고 응답하려면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데, 자기에게는 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온 삶을 걸고 응낙하도록 본래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멋지고 큰 모험을 하며 나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놀랍게도 자신이 어느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이 응낙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응낙을 깊은 내면에서 건져 올릴 때, 평생의 건 투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응낙은 마리아가 하느님께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응낙

이 부분적으로 실수나 착오에서 기인할까요? 우리 전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는 당신이 우리 안에 탄생시키고 또 재탄생시킨 것을 당신 빛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모시키려 오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부르심은 더 분명히 와 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사람은, 그 도상에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 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합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신비롭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의 남녀들을 한데 불러 모아 주님의 신비체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친교이십니다. 그분은 또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친교를 베풀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제 잘못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의 믿음을 보소서. 마리아와 사도들로부터 오늘의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신앙의 증거자들을 따라, 저 또한 나날이 신앙의 신비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대가 신뢰의 샘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이 비길 데 없는 친교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과 성체성사, 용서에 따른 평화 등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성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없이 선하고 인자한 마음, 사심없는 사랑에서 넘쳐 흐릅니다. 교회라는 이 친교의 신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성 마리아와 사도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 또한 이런 물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인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전하겠습니까? 그대는 "와서 나를 따르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젊은이처럼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인생 전체를 건 응낙을 드리려 합니다. 이 응낙은 그대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대가 어둠 속에 빠졌을 때 빛이 되어 주시며 그대를 당신의 외아들, 외딸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비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 숨은 능력들과 내적인 힘,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활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M**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우주의 여왕 (11)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것...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발현 독격 증인 이반카

질문 :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기도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안하면 가정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평화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이 받은 메시지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대지요?

이반카 : 제 고통은 주로 비밀들과 관련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 6명의 발현목격증인 모두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게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고, 비즈카에게는 당신의 일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질문 :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까?

이반카 : 일부는 먼 미래의 일이고, 또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질문 :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파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반카 :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느님이 아닙니다.

질문 : 세상의 파괴가 비밀의 일부분입니까?

이반카 : 저는 그 비밀들에 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당신은 비밀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 매년 발현하실 때, 그 비밀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당신은 커다란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훗날 비밀들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올 때, 당신이 비밀을 알려줄 임무를 받았습니까?

이반카 : 저희 발현목격증인들은 비밀을 알려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느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질문 :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반카 :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개입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충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 : 열 가지 비밀들 모두를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반카 :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모님 메시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신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당신은 이 지상에서 커다란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찾아올 것입니다. **M**

2009년 7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너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언제라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 마음,

하찮은 일로 짓눌리지 않는 마음,

내 아들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는 마음,

내 아들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나는 필요하다.

내게 너희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기 위해,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또한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그분을 흠송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너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른다.

고맙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가도록 부탁해왔으나, 내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는구나. 너희들은 말은 잘 하나, 실천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 전쟁이 그토록 오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 너희 자신을 맡기고 마음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착하게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또 내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 바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온갖 죄악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싶건만, 너희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만일 너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미사에 참례하지도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부디 사랑과 선의 사도가 되어다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다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 1993년 10월 25일 메시지-

쥘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는 부인이다. 그녀는 그 시에서 가장 오랜 기도 그룹의 지도자로서 뿌리깊은 신앙과 교회와 교황님에 대한 애정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나 역시 그녀를 잘 알고 있으며 존경하고 있다. 메주고리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로사리오 기도의 강한 힘에 대해 역설하고 있으며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12개의 메주고리에 기도 센터 중 하나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치 성모님 왕관 위의 12개의 별처럼 이 12개의 기도 센터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기도 그룹은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바치고 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빠져 있다. 사실상 샌프란시스코만큼 사탄의 거센 영향을 받고 있

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도 드물다. 그래서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위협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이곳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신다. 그녀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 남편의 병을 고쳐보려고 두 분의 신부님과 12살된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에와 로마의 순례 여행에서 돌아와 몹시 지쳐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자 홀리 리디머 성당 (Holy Redeemer) 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장이 날아왔다. (이 본당 지역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쥘리스는 청중들이 대부분 동성 연애자들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언을 하기 위해 수 시간동안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차를 몰고 장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졌다. 남편도 그녀 혼자 가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함께 동행할 형편도 못되었다. 그때 마침 그녀의 친구 데니스로부터 전화가 왔다. "쥘리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사탄은 그 곳 사람들이 성모님이나 메주고리에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면 성모님의 땅토 속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 뻔하니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 수가 없어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메주고리에에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성모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곳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쥘리스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지켜 보시던 그때의 성모님 연세와 동갑이었으며 성모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다. 그래서 그런지 그 둘은 잘 통하는 사이였다. 그 날 밤 쥘리스의 강연은 마치 성모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럽기도 하면서 신비스러울 정도로 힘찬 이야기

먼저 동성연애를 끊고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흘러나왔다. 청중들은 설새없이 클리넥스를 꺼내어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다. 강연이 끝나자 눈에 보일 정도로 감동을 크게 받은 젊은 청년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메주고리에 의 비디오를 보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의 뺨에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 내렸다.

"나는 쓰레기 통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단지 병원 주차장 쓰레기통 속에 버려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요. 그 근처를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 헤메다가 드디어 쓰레기통에서 나를 발견하였답니다. 그분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 당시 나는 피투성이였으나 살아 있더라고요. 그 분은 나를 잘 싸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동안 온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나를 양자로 키우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그 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동성애자였던 그 분과 또 그 집에서 함께 살던 그분의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떤 부인이 나를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여준다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의 따뜻함을 모르고 자랐지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십대 소년이 되자 나 역시 동성 연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군들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몇년 전 우연히 몇몇 성공회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회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성공회 신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신부 안수를 받는 날, 다른 후보들과 나란히 서서 안수를 받으려 제대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받으려 모두들 제단 위로 올라갔는데 웬일인지 마치 누군가가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부 안수를 받지 못했지요. 그 이후 나는 줄곧 왜 꼼짝할 수 없었는지 그 날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나 자신에게 되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메주고리에 비디오를 보면서 압도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목격 증인들이 성모님을 뵈고 황홀경에 빠져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부인이 내 어깨를 따뜻이 감싸 안아주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랑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뒤에 틀림없이 어떤 부인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으나 그 비디오에 사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비디오를 보면서 성모님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두 팔의 힘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기쁨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의 온 몸은 기쁨으로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떤 부인의 팔에 안겨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저는 신부 안수를 받으려 하던 날 왜 몸이 굳어버려 꼼짝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동성 연애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선 동성 연애를 끊고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쥘리스는 마치 친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날 밤 그 곳에 오기 위해 왜 그렇게 심적으로 싸워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태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악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사회의 희생물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을 지배하던 사탄의 힘으로부터 그를 구하는데 충분했던 것이다. "쥘리스, 어떻게 하면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물었다. 이렇게 해서 그 날 밤 샌프란시스코에 가톨릭 신자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또 하나의 영혼이 성모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보통의 한 영혼이 아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때부터 이 영혼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것이다. 그렇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를 꼭 껴안고 성모님의 품으로 가까이 이끌고자 기다려오셨던 것이다. 이제 다니엘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다. **M**

(성심의 승리에서 발췌)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모님은
세상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제들이 이 복된 장소로부터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은총을 직접 받기 위해 메주고리에 본당 사제관을 가득 채운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과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제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쇄신

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다. 성모님 발현 2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끊임없이 메주고리에 성지를 찾고 있는 이탈리아 마르게 지역 사제, 만리오 신부를 인터뷰했다.

질문 : 메주고리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리오 신부 : 제가 메주고리예에 관한 책들을 읽고 묵상한 결과, 메주고리예는 파티마 메시지의 지향점이며 완성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메주고리예 발현을 타협적인 입장에서 다루지 않기 위해 그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메주고리예는 세계 영성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총 여섯 번 발현하셨지만, 메주고리예에서는 28년 동안 매일 천상으로부터 오고 계십니다.

질문 : 발현이 왜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만리오 신부 : 현재 그리스도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성모님께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가정, 부부 그리고 젊은이들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성모님은 세상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를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 왜 메주고리예는 계속해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의도는 우리를 본질로 다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만리오 신부 : 수많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현 초기부터 그들은 메주고리에 발현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메주고리에 발현이 마치 광적인 것인양 치부하면서 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와 관련하여 가장 놀랄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만리오 신부 : 신앙의 재발견과 회개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이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와 형태로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메주고리에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많은 이들, 그곳에서 설립된 수많은 기도 모임과 자선 단체들은 바로 메시지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기적입니다! 교회는 이 기적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에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고 계시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마리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마리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준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에 자주 가는 것이 괜찮습니까?

만리오 신부 :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마리아께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면, 매일 일상에서 저야 하는 짐들을 대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에서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성소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질문 : 바로 그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리오 신부 :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소는 마음으로 회개한 이후 나타나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 가운데 한 가지는 성모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복음서에서 마리아께서는 별 말씀 없이 주로 관



상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오늘날 것처럼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리오 신부 : 그 점에 관해 저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작년 10월 하느님의 말씀을 주제로 열린 주교대의원회를 위한 참고 논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왜 성모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만리오 신부 : 최근까지의 모든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도는 우리를 본질로 다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 복음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 일을 하는데 있어 최고의 책임자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단조롭고, 차갑고, 맥 빠진 채로 전해지는 말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따뜻한 말씀,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모님께서



는 오늘날의 교리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 루카가 적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며 간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느님의 말씀 상자의 베일을 걷어내는 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자애롭고, 자녀들의 요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목자로서 규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라면,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 : 매달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사제로서의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까?

만리오 신부 : 저는 우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고, 좀 더 면밀히 연구하고 그 연관관계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매달 메시지들은 아주 단조롭고, 거의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개념처럼 항상 이해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그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없는 그 만큼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루르드, 파티마 그리고 메주고리에서 주신 모든 메시지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매우 심층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 없고, 지금까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들을 위한 국제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실 반대 받는 표적" 이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모님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만리오 신부 :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결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분의 증거자가 되라는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인 마음이 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리오 신부 : 교회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M**

이탈리아의 메주고리에 메아리에서 발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사블(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 인쇄



이제, 엄마가 네 손을 꼭 잡아줄께!

Orange County 한국 순교자 성당 최 필립보

형제 자매님, 지금도 루르드 성당 광장에 장엄하게 올려 퍼지는 합창 소리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루르드 순례자들이 부르는 '수난기약 다 다르니...' 노랫 소리가 마음을 울려 줍니다. 루르드 성지는 인생 여정에서 처음으로 제 영혼이 쉬어 갔던 곳이고, 하느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제 영혼에 황금 갑옷을 입혀 주시고, 수호천사로 보내주신 형제 자매님들은 저의 메마른 영혼을 항상 위로해 주며 눈물과 슬픔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침수예식이 끝나고 서로 부둥켜안고 영혼과 육신이 다시 태어난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를 짜고, 조장을 뽑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는 점점 혈육과 같은 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하여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마사비엘 동굴과, 성녀 벨라렛다의 생가를 방문하고 성녀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아름다움에 모두가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은 제게 모두가 성인 성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성녀 벨라렛다에게 "나는 너에게 지상에서의 행복은 약속 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해주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벨라렛다는 심한 영육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서도 성모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루르드 대성당 옆 산길 14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는 성모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아드님의 모습에 당신의 영혼이 칼끝에 찔린것보다 아드님의 짐이 더 무거운 것이 안타까워 "내 아들이, 언제나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겠니..." 하고 말씀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다시 보입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채 깊이 새겨주소서" 드브로브닉은 제 영혼이 두 번째로 쉬어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1700년 전에 로마에서 순교하신 실바노 성인의 썩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시신을 보면서 로마의 살육 현장이 떠오르고, 병사들이 순교자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순교자가 계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성 실바노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메주고리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성 야고보 성당이 떠오르고, 저녁 미사 후에 가진 '성시간' 이 무척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신부님이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주님을 찾나이다." 하고 기도했을 때 저의 손은 어느새 성당 허공을 향해 춤을 추며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눈은 주님을 바라 보면

얘야, 이제야 왔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네 손을 나에게 주렴...

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빛이 저의 온 몸을 감싸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안을 들어서면,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게 되고, 묵주기도를 드릴 때에는 온유하게 미소 짓는 성모님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 보이듯이, 제게도 성모님은 18세 꽃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어린 분을 향해 '어머니'하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묵주기도의 매 단마다 부르는 '아베 마리아'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하고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는 "얘야, 이제야 왔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네 손을 나에게 주렴, 이제 엄마가 네 손을 꼭 잡아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저의 마음은 마냥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라는 천국에서 세속으로 돌아 왔고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죄속에서 매일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선 가없는 영혼들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 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십자가산의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글이 새겨진 중심에는 바티칸에서 받은 예수님께서 못박히신 십자가의 일부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메주고리에의 십자가 산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에 반짝 반짝 닳아진 돌들이 무척이나 특이하며, 청동상으로 세워진 십자가의 길 15처마다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오를 때, 성모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자매님, 암 수술로 아직 완쾌가 되지 않으셨던 자매님, 심장 수술 후 호스를 몸에 끼우시고 산을 올라야 했던 자매님, 나이가 드셔서 산행을 힘들어 하시던 형제님, 모두가 힘들어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십자가 산을 오르면서 각 처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와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주고리에의 십자가 산은 영혼과 육신의 보속을 하는 곳이기때 매일같이 새벽에 십자가 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저도 지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한없이 빌며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선 매일같이 저를 십자가 산으로 이끄셨고,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 지쳐 있을 때는 기적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자매님과

함께 캄캄한 새벽에 산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도 그날은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십자가산의 산행은 처음부터 검정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우리 일행과 동행했습니다. 일행들이 십자가 산 2처와 3처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이 검정 강아지는 한결같이 우리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해서 저는 강아지에게 옷자락을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잘못된 방향이었고 강아지가 옷자락을 물고 끌었던 방향이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는 어머니께서 수호천사로 보내주신 것인데 미처 알아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날 저는 지쳐서 손전등도 없고 길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산을 내려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앞에 어떤 남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갑자기 나타난 그분은 신부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새벽 십자가 산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 의아스러웠지만 "신부님, 안녕하세요? 일찍 산에 갔다 오시네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네, 플래쉬가 필요하시죠?" 하며 우리에게 플래쉬를 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분이 플래쉬 없이 어떻게 산을 내려 가실까?" 하는 생각에 뒤돌아 보았지만, 어느새 그분은 사라지고 칠흙 같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함께 산을 오르던 율리아 자매님이, 갑자기 저의 뒤다시피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일행 네 명은 "저 자매님이 왜 저럴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매님은 그곳에서 두 번씩이나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산을 뒤다시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우리에게 플래쉬를 주신 분은 호텔에 묵고 계신 신부님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지만, 신부님은 십자가 산에 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수호천사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 순교자의 어머니, 가난한 이의 어머니, 사제들의 어머니,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산을 오르던 날, 1처를 가기 전 시작기도를 바치는 청동상 앞에서 "먼저 유 바올라 자매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이 제 마음 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말이 제 가슴 속에 들렸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동안 유

바울라 자매님께서 우리를 매일 십자가 산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자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일행이 매일같이 십자가 산을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바울라 자매님을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매일 십자가 산에 오르게 하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산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좋으셔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정말 사랑합니다."

성모님 발현목적증인 비츠카를 만나러 가는 날도 새벽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저와 몇몇 자매님들이 새벽잠에서 깨어 추위에 벌벌 떨면서 비츠카의 집 2층 계단을 무사히 사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비츠카로부터 성물들에 기도받고, 비츠카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출 수 있었으며, 로사 자매님은 반 강제적으로 비츠카의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요안나 자매님은 2층으로 올라가서 비츠카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비츠카와의 만남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츠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흠리스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피부와 아무렇게나 빗어 넘긴 머리모양을 한 모습은, 여지없는 촌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 자애스러웠고 빛나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비츠카 그분이 바로 성모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몇 시간 동안만 단 일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정한 눈빛과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성모님의 미소와 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준 비츠카와 함께 드렸던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발현산에서 한국 사람이 기증한 성모님 동상과 오아시스 수녀원과 체나콜로 공동체도 방문하였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제 육신과 영혼을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으며 호텔에서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분께서 치유기도를 해주시는 동안 제 마음은 정말 온전하게 활짝 열렸고, 말씀은 제 영혼을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감동이나 호소력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보통 사람이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한 신부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저를 대신하여 기도를 해주시었

으며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울고 있는 제 모습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요조 신부님께서 직접 축성해주신 하얀 묵주와 성모님 상본 뒷면을 보면서 과연 몇 개의 조약돌로 매일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1.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와 묵주기도
2. 영성체
3. 매일 성경 읽기
4. 단식
5. 매달 고백성사



형제 자매님,

그동안 제 인생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형제 자매님과 함께 했던 12 일간의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과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적의 패' 성당에서 카타리나 수녀님의 밑남시신을 보았고,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12일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정녕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것은 저의 영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영혼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저입니다. 영혼하면, 흔히 문학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과 철학적인 언어 정도로 이해하고 가끔 편지를 쓸 때뿐이었는데 비로소 그곳에서 활활 살아 있는 제 영혼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을 제게 보여 주시므로써 제 영혼을 발견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시간에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주님, 방 로마노 신부님,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과 48차 성지 순례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 속에서 항상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루르드와 메주고리에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결심들이 꼭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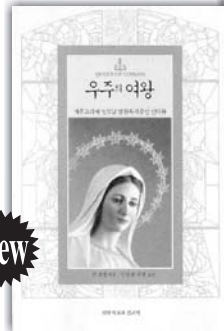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서는 지난 27 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이 책에서 목격 증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에의 부르심'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이웃에게 선물도 하시고 선교도 하세요.

**전품목
15% 할인**

- 엄마의 화살 기도(두숨 엮음)
- 우리 아이 성공으로 이끄는 10분 인생수업 (제이미 밀러 지음)
- 우리가 예수를 찾는(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1 & 2편)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이역 하늘 아래서(이석현 지음)
-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강길웅신부 지음)
- 존주성범(대 & 소) (토마스 아 켈피스 지음)
- 지혜로운 삶(짐 포 리스트지음)
- 피의 증거(황서영 백서를 찾아서)(전서권 지음)
- 한송이 해바라기처럼(고마태오 신부 지음)
- 행복을 위한 선택(최기산 신부 지음)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해민 수녀 지음)
- 화 제대로 내기(버트 게찌 지음)
-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박도식 신부 지음)
- 단팔뿔속에 남겨둔 행복(임경자 수상집)
- 내 안에 말씀이(이동호 신부 지음)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단계(마태오 린 지음)
- 믿음 희망 사랑(아베리오네 신부 영작가르침 (알베리오네 신부 지음)
- 하느님의 사람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소책자)
- 인격적 만남에의 초대(알버트 보드로우)
-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려라(헨리 뉴엔)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키딩 지음)
- 침묵속의 만남(칼 라너 지음)
- 연옥 실화(막심 뤼앙 지음)
- 시에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따올라 지음)
- 희망의 영성(데군도 갈릴레아신부 지음)
- 토마스 머턴의 씨앗(토마스 머턴 지음)
- 무혈의 순교(변기영 신부 지음)
- 나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이상각 지음)

- 세계성서 공회와 한국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1000여종의 서적 그리고 성서, 성물, CD, Tape 구비 (도서 목록 email 발송)
-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여종의 서적과 성서, 성물, CD, Tape에 대한 목록을 e-mail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처 :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재복, 김건일, 김경섭, 김골롬바, 김금성, 김금식, 김마테라, 김마리아, 김만춘, 김미셀 숙, 김복례, 김성주, 김세록, 김소영, 김수연, 김숙자, 김안나, 김애란, 김영서, 김옥희, 김원경, 김은미, 김정자, 김주희, 김준애, 김호영, 김홍배, 김혜숙, 김효신, 김효정, 남옥희, 노순재, 류숙자, 문방자, 맹성호, 민조세핀, 민진아, 민혜레나, 박금자, 박도원, 박문수, 박병칠, 박정자, 박정희, 박혜선, 서순희, 서진희, 손마리아, 성데레사, 성문신, 성순희, 신순덕, 신현, 안연숙, 엄봉화, 엄토마스, 유미영, 유보영, 유정순, 유제인, 윤경만, 윤경이, 윤소화데레사, 윤칙상, 이계숙, 이규영, 이동우, 이로서, 이명진, 이석영, 이선예, 이수산, 예길자, 이영분, 이옥범, 이용호, 이유미, 이윤영, 이윤우, 이은희, 이인영, 이일영, 이재순, 이준용, 이차선, 이철호, 이태영, 임효경, 장민현, 장영아, 잔슨윤숙, 전진숙, 전현숙, 정금희, 정명좌, 정운모, 정현숙, 조동진, 조코리, 조안나, 조영준, 진도미니카, 지니김, 지현남, 최복동, 최석진, 최선영, 천어진, 추호숙, 한마리아, 황정애, 황혜정, 허글라라, 허정희, 홍옥선, 마라나타기도회, 익명

Dong C. Chun, Frank R. Wilson, Insuk Mullins, Mary Lee, Yun Hui Mihalchik, Yong Cha Bower, Auxilia Ra, Byong Ryou, K Larcenaire, Eileen Cho, Lisa Rigoni, E.S Lee, Kyung Y. Han, Tal Lee, Bokim Kang, Tak Lee, David R Burger, Y. L, Bai, Okson Baker, Cynthia Ziggman, Annie Felix, Yoon Lee, Song Brown, Eileen Cho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는 매호 20,000부를 발행하여 4,500부의 개인 발송을 비롯하여 꾀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한국, 캐나다, 메주고리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 러시아 등에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원하는 모든 곳에 무료로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선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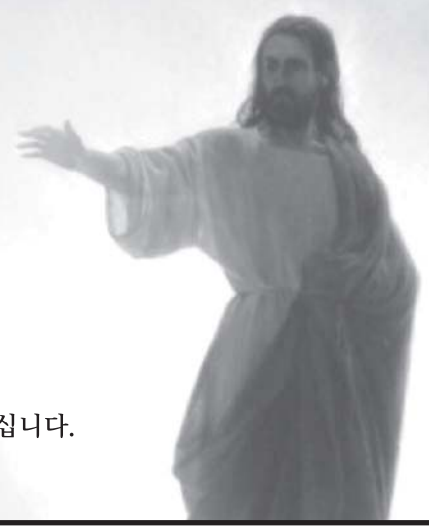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10,287.00
지출 :	
평화의 모후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2,700.00
잔액	-\$ 2,413.00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마음의 어둠과 슬픔과 나약함,
그리고 여러분의 방종한 습관 등을 감추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하느님이시므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파리, 루르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 일 정 :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박 13일)
- ▶ 지도신부 : 김영철 라우렌시오 신부
- ▶ 순례안내 : 남 그레고리오
- ▶ 경 비 : \$3,150 Washington-Dulles (IAD) 공항 출발
- ▶ 문 의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Tel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www.qpm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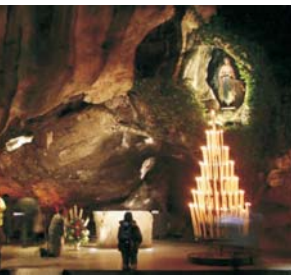
순례지

파리, 루르드 :

기적의 메달 성당, 한국외방 선교회, 예수 성심 성당, 노틀담 성당, 루르드 쫓불행렬 참석, 기적수 침수, 벨라데타 성녀 생가 방문, 십자가의 길 묵상, 기념성당에서 한국어 미사봉헌.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발현산, 십자가산과 14처, 청 십자가, 슬라브코 신부님의 묘지참배, 부활 청동상, 기도와 노동으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체나콜로 공동체 방문과 체험담, 오아시스 수도원, 티할리나 성모님, 매일 저녁 야고보 본당의 은혜로운 치유의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 및 성 시간 참석, 아름다운 아드리아해 성곽도시와 성지방문,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봉헌, 아드리아 해안가의 루르드 성모동굴 방문.



PRSRJ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